https://doi.org/10.23073/riks.2024..16.013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비판-반론의 방식과 가문소설적 지향

Methods of Criticism-Counterargument and Family Novel Orientation in <Hwangreung Monghwangi>

유요문•

국문요약 본 논문은 조선 후기 몽유록 〈황릉몽환기〉를 대상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발화에 나타난 비판과 반론의 방식을 탐색하고, 그 방식이 가문소설의 서사적 기법, 미의식과 맞닿아 있음을 밝혀보았다. 〈황릉몽환기〉 선행 연구에서는 연작 소설이나 몽유록 내부에서의 변화, 여성 의식에 주목하였지 가문소설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탐색한 경우는 없었다. 이 글에서 연관성을 탐색한 결과, 계암의 비판에서 관계성을 지향하는 측면이 나타나며 이것은 가문소설의 관계성과 맞닿아 있었다. 또한 작품 속 상비와 주비가 반론을 펴는 부분은 시댁으로부터의 소외, 가족과의 이별, 자식의 죽음, 자식의 불초함 등 가족과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어 이것이 가문소설의 서사 기법에 영향 받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 몽유록 장르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한편 계암의 재비판 부분은 〈사씨남정기〉의 황릉묘 대목을 빌려와 몽유록 방식으로 재창작한 것이며, 마지막 〈유효공선행록〉의 등장인물 정씨의 반론 부분은 정씨를 절사한 인물로 개작하여 이념성을 높이면서도 선계와 아들로 인한 복록을 누리는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복선화음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킨다. 이것은 몽유록 기법과 가문소설 기법의 적절한 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황릉몽환기〉는 가문소설을 향유했던 여성들이 그 기법을 내재화하며 점차 몽유록으로 옮겨간 결과물이며, 지금까지 몽유록 작품 중 가문소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유일한 작품으로 그 소설사적 의의를 평할 수 있다.

핵심어 황릉몽환기, 몽유록, 가문소설, 장편국문소설, 황릉묘

차례

1. 들어가며
2.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비판과 반론의 방식
2.1. 계암의 비판과 웃음의 코드
2.2. 여성들의 반론과 가족의 코드
3. 〈황릉몽환기〉의 가문소설적 지향의 의미
4. 나가는 말

1. 들어가며

이 글은 조선 후기 몽유록 〈황릉몽환기〉[1]를 대상으로

1 현재 학계에 알려진 〈황릉몽환기〉 이본은 모두 7종으로, 한글필사본 6종과 한문필사본 1종이 있다. 최근 유요문은 〈황릉몽환기〉의 새로운 이본인 이현조 소장본 〈냥협ᄉᆞ몽유록〉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것까지 합해지면 모두 8종으로 확충된다(유요문, 「〈황릉몽환기〉의 새 이본, 〈양협사몽유록〉」, 『고전과 해석』 42,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4, 263~277쪽). 이 글에서는 새로운 이본인 〈냥협ᄉᆞ몽유록〉을 저본으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저본으로 삼은 것은 선본으로 알려진 고려대본 〈황능몽환긔〉가 낙장(11면)되어 불가피하게 성균관대본 〈황능묘몽환긔〉와 교합한 것이다. 한편 〈냥협ᄉᆞ몽유록〉은 강전섭본 〈황릉묘몽유록〉(낙장, 11면)과 마찬가지로 작품 중간 상비가 투색연을 열어 여와의 노여움을 입었던 사건을 술회하는 대목이 생략되어 있어 강전섭본과 같은 계열임이 확인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강전섭본은 어휘의 사용이 고려대본 만큼 정확하지만 앞부분이 모두 낙장되어 저본으로 삼기 적합하지 않았다. 이번 소개된 〈냥협ᄉᆞ몽유록〉은 완질(39면)의 형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www.kci.go.kr

작품 속 등장인물의 발화(비판과 반론) 양상을 탐색하고 그 방식이 가문소설[2]의 서사적 기법과 맞닿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문학 연구에서 장르를 탐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기존의 양식 및 관습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3] 그런 점에서 〈황릉몽환기〉는 독특하다. 장르사적으로 이 작품은 전대 몽유록 양식을 답습한다는 점에서 몽유록 계열에 해당한다. 하지만 몽유자가 두 명이라는 점 등 몇몇 부분을 보았을 때 이 작품은 기존 몽유록의 성격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다. 특히 작품의 등장인물 중 가문소설 〈유효공선행록〉의 등장인물 정씨 부인의 출현은 이 작품이 일정 부분 다른 장르와 영향 관계에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 이 작품은 당대 가문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비평을 바탕으로 창작된 〈투색지연의〉, 〈여와전〉의 후속 작품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자는 가문소설 향유에 익숙한 인물이라고 전제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황릉몽환기〉 연구는 그 연구 성과가 적기도 했지만 가문소설 향유에 초점을 맞춰 작품의 구조를 드러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몽유록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거나, 연작 관계를 해명하거나, 여성 의식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된 감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황릉몽환기〉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를 정리해보고 연구의 빈 공간을 찾아 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황릉몽환기〉의 연구는 장효현의 발표[4]로 학계에 소개된 이후 이 작품이 이비(二妃) 전설의 배경에서 산출되었음을 밝힌 우쾌제의 논의[5]로 이어지면서 출발하였다. 이후 작품 창작 및 향유 제반 사항과 그것의 기능까지 짚어내어 작품론의 기반을 쌓은 지연숙과 김정녀의 논의가 돋보인다. 지연숙은 유교적 이념을 실천했지만 복록을 누리지 못한 인물에 주목하여 복선화음의 허구성을 확인함으로써 불우한 작자를 위로하는 작품으로 보았다.[6] 반면 김정녀는 현실적인 복록보다 유교적 이념 실천을 통해 후세의 모범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소설로 읽으면서 이것이 조선 후기 여성 독자의 서사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의의를 밝혔다.[7] 이 둘의 논의는 타당한 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각 연작 관계와 몽유록 변개 과정을 조망하면서 작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문소설과의 연관성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지연숙의 경우, 〈황릉몽환기〉가 장편소설 인물들에 대해 비평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했기에 이 글의 논의와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장편소설 향유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 〈황릉몽환기〉의 정씨 부인을 활용했을 뿐 작품 전체에 드러난 가문소설의 지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반재유와 강우규의 논의도 제출되었다. 반재유는 정씨 부인의 발화에 주목하여 〈황릉몽환기〉가 남성 중심

태를 갖추고 있고, 동시에 〈황릉몽환기〉의 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독립적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저본으로 삼기 적합하다 판단된다. 〈냥협ᄉᆞ몽유록〉 원문에 대한 정보는 위의 논문(유요문, 2024, 278~298쪽)에서 참조하였다.

2 '가문소설'은 국문으로 적힌 장편의 소설이기에 '국문장편소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최근 국문장편소설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발화 양상이 가문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문소설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작품인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은 한문본도 존재하며, 특히 〈사씨남정기〉의 경우 가정소설로 장르적 성격을 정의하고 있기에 가정과 가문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가문소설'을 정하게 되었다.

3 김흥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30쪽.

4 장효현, 「〈황릉몽환기〉에 대하여」, 국어국문학회 전국대회 발표요지, 1995.5.28;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140~154쪽 재수록.

5 우쾌제, 「이비전설의 소설적 수용 고찰」, 『고소설연구』 1, 한국고소설학회, 1995; 우쾌제, 「〈황릉몽환기〉 연구」, 『어문학』 58, 한국어문학회, 1996.

6 지연숙, 「〈황릉몽환기〉 연구」,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0; 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재수록;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재수록. 인용 시 마지막의 책을 기준으로 삼음.

7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전개 양상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정녀, 「여성 향유층의 존재와 조선후기 몽유록」, 『반교어문연구』 16, 반교어문학회, 2004 재수록;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재수록. 인용 시 마지막의 책을 기준으로 삼음.

www.kci.go.kr

적 서사인 국문장편소설을 패러디, 즉 여성의 이야기로 그 방향을 전복시킨 작품이라고 규정했다.[8] 강우규는 작품 속 여성인물들의 비애 토로에 대해 탐구하고 이것이 당대 국문장편소설(가문소설)을 향유한 여성들이 슬픔에 대해 공감했던 의식이 내재해 있으며 동시에 가부장제를 내면화한 여성들의 이원적 의식임을 밝혔다.[9] 반재유와 강우규는 여성 의식(특히 정씨 부인)에 착목하여 〈황릉몽환기〉를 바라보았다는 점이 같다. 강우규의 논의는 〈황릉몽환기〉의 의식 속에 가문소설과의 연관성을 논의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는 연관 작품인 〈유효공선행록〉만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의 패러디에 대해 논의하였기에 정씨 부인의 발화에 집중한 감이 있으며,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발화가 어떻게 가문소설과 접근되어 있는지 드러내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단순히 여성의 '공감'이 가문소설의 것과 비슷하다는 정도의 피상적 논의에서 그칠 뿐이었다.[10]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면 〈황릉몽환기〉 연구사에서는 가문소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씨 부인과 관련하여 국소적으로 파악한 듯하다. 이 글은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발화 전체를 대상으로 가문소설과의 접합 지점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를 함으로써 기존의 성과와 다른 논의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시 말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발화가 가문소설의 미학, 지향, 서술기법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 찾고, 작품의 설계 구조를 미시적으로 따져 그 소설사적 의의를 타진하고자 한다. 바로 이때 작품에서 건네고자 한 메시지와 방향성이 무엇이었는지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비판과 반론의 방식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황릉몽환기〉의 줄거리 및 구조를 세밀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겠다.

〈표1〉 〈황릉몽환기〉의 줄거리 및 구조

구분	서사 단계	행위 주체	내용
(가)	도입	-	등장인물 소개 및 배경 제시
(나)	비판1(입몽)	계암	소상강 유람 및 계암과 경암의 대화
(다)	비판2	계암	입몽 후 황릉묘에서 이비와 조우
(라)	반론1	상비	계암의 비판에 대한 상비의 반론
(마)	반론2	주비	상비의 치사에 대한 주비의 반론
(바)	비판3	계암	도(道)의 존재에 대한 의문
(사)	반론3	정씨	자신의 사적(事跡)이 잘못 알려졌음을 반론
(아)	각몽	-	등장인물의 태도 및 배경 묘사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황릉몽환기〉는 계암의 비판과 상비, 주비, 정씨의 자기 반론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다) 계암의 비판은 주로 이비가 소상강에서 절사(節死)한 것이 과하다는 내용이고, (라) 상비의 반론은 자신이 절사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사에 대해 언급한다. (마) 주비의 반론은 상비가 자신보다 복록이 더 많은 자가 있으니 그것이 주비라 말하자, 주비 또한 자신의 개인사를 말해준다. (바) 계암의 비판은 주비의 이야기에 공감한 상비가 모범이 될 행동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것에 반발한 계암이 도(道)의 실체를 의문시한다. (사) 정씨의 반론은 〈유효공선행록〉에서 전해진 이야기는 가짜이며 실제는 남편 유연을 따라 자결한 자신의 개인사를 들려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판과 반론의 방식이 서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계암의 비판은 예(禮)와 비례(非禮)를

8 반재유, 「〈황릉몽환기〉의 서술태도와 작가의식 : '정씨' 이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9 강우규, 「〈황릉몽환기〉의 이원적 성격 고찰 :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0, 중앙어문학회, 2014; 강우규, 「〈황릉몽환기〉의 리텔링 방식을 활용한 자기서사 글쓰기 교육방법의 고찰」,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2015.

10 한편 최근 유해인은 작품 속 여성 비애담의 기능에 방점을 두고 그것이 몽유자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밝히며 천도(天道)에 대한 회의라는 문제의식을 심화하기 위한 서사 장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까지 작품 속 여성 의식에 매몰되었던 연구사와 달리 몽유자 중심으로 작품을 바라보았다는 점, 그리고 미시적 기능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라 평할 수 있다. (유해인,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여성 비애담의 특징과 그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9,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www.kci.go.kr

대별시키면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한다. 즉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성리학적 논리로 이비라는 대상을 비판한 셈이다. 물론 (바)는 앞선 (나)-(다)와 달리 그 비판의 대상이 이비가 아닌 사회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선 후술한다. 한편 여성들의 반론 부분은 대체로 개인사를 통해 상대의 주장을 파훼한다는 점이다. 이 개인사는 감정에 호소한 것이며 자신의 가족과 가문에 대한 언술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들의 반론은 계암의 이성적 비판과는 분명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우선 2장에서는 (나)~(마)까지의 비판과 반론 부분을 중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바) 비판3과 (사) 반론3은 앞부분과 연계되면서도 성질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3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1. 계암의 비판과 웃음의 코드

계암의 비판을 직접 보기에 앞서 〈황릉몽환기〉의 몽유자의 특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김정녀는 "작자가 몽유자를 두 명으로 설정한 의도가 자못 궁금하다"[11] 고 언급하였고 다른 몽유록과 달리 〈황릉몽환기〉에서만 몽중 인물과의 관계가 '비우호적'으로 설정[12]된 특징 역시 독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몽유록에는 몽유자가 2명인 경우가 없었으며, 또한 몽유자는 꿈속에서 만나는 몽중 인물과 서로 인격이나 글 솜씨 등에 대한 존경과 흠모, 몽중 인물이 겪은 일에 대한 공감이 나타나기에 우호적이다. 그러므로 복수의 몽유자와 비우호적 관계는 〈황릉몽환기〉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이러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몽유록 양식 내에서만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몽유록의 서사 관습이 아닌 다른 장르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나)의 장면이다.

> 곡조를 맛지 못ᄒᆞ여 경암이 옥소를 더지고 소왈 "형의 곡조 비록 빅아의 ᄒᆞᆫ을 슬오고 종ᄌᆞ긔 넉슬 울녀ᄌᆞᆨᄒᆞ나 거문고 ᄯᅳᆺ이 샹군샹비의 창오의 ᄯᆞᆯ옴과 소샹의 졀ᄉᆞᄒᆞᆷ을 넘나게 너기문 엇지 망녕되지 아니리오?" 계암이 잠소ᄒᆞ고 날호여 거문고를 밀치고 닐오ᄃᆡ "군이 날을 망녕되이 아나야? 아지 못게ᄅᆞ 천고녀ᄌᆞ을 비기ᄆᆡ뉘 샹비ᄋᆡ 복덕을 우런ᄌᆡ 잇돗던고? 요지ᄃᆡ셩으로 위부(爲父)ᄒᆞ시고 슌지ᄃᆡ셩으로 위군ᄒᆞ시며 귀위황후ᄒᆞ시고 부유ᄉᆞ히ᄒᆞ시며 쉬 일빅십셰시고 ᄌᆡ위 뉵십일년이시니 무어시 낫부며 무어시 부족ᄒᆞ여 혈뉘 소샹죽엽을 물드리고 몸이 도로 우서 졀ᄉᆞᄒᆞ시리오? 진실노 셩인이 과욕ᄒᆞᆫ가 ᄒᆞ나니 천만고외 박명원부을 헬진ᄃᆡ 남산 ᄃᆡ를 버히고 창히슈를 기우려도 족지 못ᄒᆞ리니 샹비을 낫부시다 ᄒᆞᆫ 즉 ᄯᅩ 무어시 족ᄒᆞ다 ᄒᆞ리오?" 경암이 더욱 우서 가로ᄃᆡ "언죽이 식비럴 ᄒᆞ니 셩인도 허물이 계시도다. 만일 샹비 아뢰신 즉 그ᄃᆡ 죄을 엇지 면ᄒᆞ리오?" 계암이 답 소왈 "상비 진실노 녕혼이 계실진ᄃᆡ 날를 직언졍논ᄒᆞᆫ다 ᄒᆞ시리라. 셩인이 엇지 직언을 죄ᄒᆞ시리오? 만일 그ᄯᅢ 낫든덜 후비의 술위 ᄯᅴ 창오 구을게 아야시리라. 비록 셩인의 도를 하ᄌᆞ치 못ᄒᆞ나 ᄂᆡ 실노 고히이 너기ᄂᆞ니 그ᄯᅢ만 ᄒᆞ여도 오히려 ᄐᆡ고젹 갓ᄒᆞ여 셩덕과 ᄃᆡ되 무위이화ᄒᆞ여 슌박ᄒᆞᆯ지언뎡 네졀이 붉디 아니턴가 ᄒᆞ노라." 경암이 박 소왈 "말마다 광망ᄒᆞ다. 엇지 네 모ᄅᆞᄂᆞᆫ 셩인이 이시리오?" 계암이 역 소왈 "네를 모ᄅᆞ실 줄 아니로ᄃᆡ 진실노 고금이 다람 연괴라." ᄒᆞ고 셔로 우으며 쥬호를 나와 통음ᄒᆞᆯ ᄉᆡ (〈냥협ᄉᆞ몽유록〉 6~8면.)

계암은 이비의 옛일을 두고 '그들이 무궁한 복록을 갖고 있음에도 절사한 것은 과욕(過慾)'이라고 평한다. 반면 경암은 계암의 거문고 소리와 그의 비판적 언사를 두고 '망령되다'거나 '광망하다'고 평한다. 이비는 분명 유교적 사회에서 신(神)과 같은 자리로 좌정해 있는 존재다.[13] 그

11 김정녀, 앞의 책, 169면 각주 83번.

12 이 역시 김정녀가 언급한 바 있다. 위의 책, 169쪽.

13 한편 〈냥협ᄉᆞ몽유록〉에는 내제 밑에 '성모(聖母)를 비판(批判)'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비는 당시 사회의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된 것은 분명하다.

www.kci.go.kr

래서 이들의 대화는 마치 신성모독을 하는 한 친구에게, 조심을 당부하는 친구의 언사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웃음(笑)'을 짓는 부분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대화 마지막에는 서로 웃으며 술과 음식을 내와 술을 흠뻑 마시기까지 한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계암의 이비에 대한 비판은 비록 광망하고 망령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은 신성모독 차원에서 진중한 비판을 가한 것이 아닌 친한 벗 사이의 익살스러운 '희담(戱談)'적 성격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가문소설은 가문의 창달을 주제의식으로 하지만 동시에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기도 한다. 가문소설에서 희담은 보통 "가족과 동료 등 친근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14]한다. 경암과 계암의 대화는 여기에 부합한다. 그러나 문제는 희담의 초점이 되는 인물이 이들 대화에 없다는 점이다. 이비 행동에 대한 비평이 이들 대화의 주요 소재이지만 이비는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비는 계암과 아무런 관계성을 갖지 못한 존재이기도 하다. 〈황릉몽환기〉의 몽유자와 몽중 인물의 관계가 비우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희담이 지나치거나 수용자가 농담을 거부하면 오락적 흥미는 사라"[15]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가문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제 (다)의 장면을 보자. 위의 대화 이후 황릉묘로 간 두 선비는 상비에게 "경이 비록 좀 직학이 이시나 일기 슈유로 우리 ᄌᆞ미를 폄논ᄒᆞ여 직ᄉᆡ로라 ᄒᆞ니 글로 닐은 바 직언을 다ᄒᆞ라. 우리 또한 상벌을 명빅히 ᄒᆞ리라"[16]라는 질책을 받게 된다. 이것은 상비가 이들의 희담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계암은 상비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즉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 희담에서 밝혔던 자신의 생각을 다시 알려주면서 서로의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에 계암의 비판을 직접 들은 상비는 "금셕지논이오, 가위 직ᄉᆡ라"[17]고 계암을 평가하며 그의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즉 관계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몽유록 장르에서 인물 간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몽유록 장르에서는 몽유자가 몽유 인물과 감정적인 공감을 통해 단숨에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황릉몽환기〉는 희담을 통한 비판으로 인해 이비가 '오해'하게 되고, 직접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써 오해가 풀리며 비로소 관계가 형성된다. 가문소설은 등장인물 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상비가 계암의 비판을 오해하게 된 것은 대화를 '엿듣기' 때문이다. 가문소설 장르에서 상대의 대화를 엿듣거나 혹은 다른 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서 맥락을 잘못 파악하여 사건을 오해하고 등장인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일은 자주 등장하는 화소다.[18] 〈황릉몽환기〉의 작자가 몽유자를 두 명을 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엿듣기 기능을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문소설의 등장인물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상대방과 직접 만나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게 되면서 관계가 호전되고 더욱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창선감의록〉에서 요부인의 유모 취선(翠蟬)이 화빙선에게 심씨 부인의 잔인함에 대해 토로하자 심씨의 시녀 난향이 창 밖에서 이 말을 몰래 엿듣고 심씨에게 전하게 되는데, 심씨는 이것을 가문의 적장자이자 자신의 아들 화춘의 자리를 뺏는다고 오해하게 되어 화진과 화빙선을 핍박한다.[19]

14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77쪽.

15 정혜경, 위의 논문, 76쪽.

16 〈냥협ᄉᆞ몽유록〉 13쪽.

17 〈냥협ᄉᆞ몽유록〉 18쪽.

18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엿보기'와 '엿듣기' 서사 기법 연구」, 『한국고전연구』 6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170~173쪽.

19 〈倡善感義錄〉(고려대본). "蘭香者方狙窓外, 踊躍走告於沈氏. 沈氏使蘭香·桂香, 捽致小姐, 頓足罵曰: "賤女娉仙, 敢懷凶心, 符同賤子, 圖奪長位, 而欲先去嫡母, 與賤婢翠蟬, 綢繆謀議耶?" 小姐錯莫無語, 珠淚橫流. 沈氏又招公子, 跪之堂下, 以鐵如意擊碎闌干, 大聲數罪曰: "汝賤子珍, 藉勢成

www.kci.go.kr

물론 〈창선감의록〉은 〈황릉몽환기〉와 달리 화진과 심씨의 관계가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황릉몽환기〉는 인물 간 관계 구조를 오해와 갈등으로 흩트려 놓았다가 다시 회복하는 서사를 취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이전 몽유록과 달리 관계성 형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은 〈황릉몽환기〉가 겉의 구조는 몽유록을 답습하면서도 내부의 서술기법은 가문소설의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황릉몽환기〉는 몽유록 장르를 기반하고 있기에 가문소설의 기법과 완벽하게 부합하진 않지만 '서사적 지향성'이 가문소설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선 후술할 논의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2. 여성들의 반론과 가족의 코드

이제 (라) 상비의 반론1, (마) 주비의 반론2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비애담'이나 '비애 토로'로 보고 이것을 상대방(몽유자 혹은 몽중 여성 인물)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염시키기 위해, 즉 '공감'을 얻기 위한 서사로 규정했다. 환언하면 상비와 주비 등이 누린 복록의 이면에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교과서적인 역사(작중엔 『열녀전』, 『사기』 등)와는 다른 부분에 대해 말해준다. 이 글 역시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의 대화에 대해 '비애'의 정조에만 주목했을 뿐 그 내용이 '가족'에 대한 개인사가 담겨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경의 말이 다 올흐나 우흐로 구고긔 뜻을 엇지 못ᄒᆞ고 버거 슉뫼 화우치 못ᄒᆞ니 텬ᄒᆞ의 네 한낫 촌녀만 갓지 못ᄒᆞ고 만승의 부귀를 구고긔 더으지 못ᄒᆞ니, 우양창늠이 또 무어시 귀ᄒᆞ리오? … 하물며 집 우희 불이 닐며 우물의 물이 소술 적 비록 셩인의 덕이 높고 지혜 먼들 엇지 부인 여ᄌᆡ 놀나지 아니며 슬허 아니리오? ᄌᆞ미 서롤 붓드러 간위를 술오거ᄂᆞᆯ 상의 오만ᄒᆞ고 무례ᄒᆞ미 쓱이 업ᄉᆞ니 엇지 여ᄌᆡ 되오미 귀쳔 잇시리오? 셩인의 부뫼시나 히올 ᄇᆡ 업ᄉᆞᆫ지라. … 덕이 박ᄒᆞ고 복이 과ᄒᆞ야 위인이 미ᄒᆞᆫ 바의 일홈이 넘은 고로 텬의 외오 넉이ᄉᆞ 상균의 불초ᄒᆞ미 부군을 츄착ᄒᆞ니 ᄌᆞ모의 약ᄒᆞᆫ ᄆᆞ음이 하로도 즐거오미 업고 스〃로 ᄐᆡ교의 불션ᄒᆞ미 붓그러운지라. … 진실노 그ᄯᅴ도 녜졀 이ᄯᅴ와 다르고 상균의 불초ᄒᆞ미 셩인의 녜졀을 어그랏출지라. … 셩효ᄃᆡ덕이 혼연ᄒᆞ시나 반ᄉᆡᆼ을 민쳔의 호읍ᄒᆞ시고 후ᄉᆡ는 불초ᄒᆞ니 진실노 녜의 복녹이 셩덕과 갓지 못ᄒᆞ신지라. …" (〈낭협ᄉᆞ몽유록〉 20~24면)

위는 상비가 계암의 비판에 대한 반론이다. 계암의 비판을 정리하면 과도한 예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상비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성적인 논리를 통해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통해 해결하는 전략을 취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상비는 자기 자매들이 순임금에게 시집을 와서 얼마나 고단했는가를 여러 사례를 열거해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보면 1) 시아버지인 고수(瞽瞍) 및 여동생과 화목하지 못하고, 2) 시동생인 상(象)과 시아버지 고수가 순임금을 자주 죽을 위기에 몰아넣어 놀랐으며, 3) 늦게 낳은 자식 상균(商均)은 불초하여 즐거움이 없고 태교를 잘 하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자란 자식을 낳아 후사(後嗣)를 잇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1)과 2)는 시댁에서의 소외, 3)은 자식에 대한 부끄러움 정도로 간략히 재분류할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주인공이 소외되는 양상은 가문소설에서 주요 소재로 다뤄지는 부분이다. 가령 〈창선감의록〉의 화진이나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은 각각 계모와 친부에게 소외되는 존재들이다. 더 나아가 상비와 같은 여성에 주목해본다면 시댁의 소외로 눈물을 짓는 여성 또한 가문소설에서 자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창선감의록〉에

夫人, 而愚弄先君, 欲奪據嫡長, 不助惡, 大事敗謬, 乃反妖婢凶婢, 謀爲不測乎?""

www.kci.go.kr

서 화진과 혼인 관계를 맺은 남채봉과 윤옥화는 계모 심씨와 조월향의 집요한 괴롭힘에 고통을 받는다. 〈창선감의록〉이 순임금 고사와 등치된 작품이라면[20] 화진을 순임금으로, 남채봉과 윤옥화를 아황과 여영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 이들의 고통은 〈황릉몽환기〉에서 상비가 언급한 대목과 연관성이 있다.[21]

물론 〈황릉몽환기〉가 이비 고사 혹은 전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몽유록 장르에서 몽중 인물이 스스로의 '비애'를 얘기하면서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해 다룬 사례는 없다. 비슷한 시기 〈부벽몽유록(浮碧夢遊錄)〉에도 양귀비와 이부인, 우희 등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전쟁의 참화나 남편(임금)이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과 슬픔을 가진 한(恨)이 서린 인물들로 그려진다. 〈부벽몽유록〉의 '한'의 정서는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한'의 정서와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부벽몽유록〉은 이전까지의 몽유록과 전기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던 역사의 불우(不遇)로 인해 개인적 '참화'를 겪은 일들을 소개하지만,[22] 〈황릉몽환기〉는 그런 참화가 아닌 복록의 화려함 뒤에 놓여 있는 불행한 개인적 '현실'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가 진행된다. 다시 말해 〈황릉몽환기〉는 특정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집중하지 않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만한 소재에 대해 이야기를 취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황릉몽환기〉의 내용은 비록 『열녀전』 혹은 각종 경서와 역사서에 드러난 내용을 취하고 있으나[23] 그것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여성들이 관심을 두던 소재, 즉 가족과의 갈등과 소외라는 국면에 주목해 취사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쉽게 말해 〈황릉몽환기〉의 '비애담'을 통한 공감의 방식은 기존 몽유록을 답습하고 있지만, 비애담 내부는 거시적 역사의 흐름에 좌절을 당한(환언하자면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한) 인간을 그린 것이 아닌 미시적 · 개인적 삶 속에 소외된 인간을 그린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것은 몽유록 장르의 흐름에서 비껴간 부분이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자식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가문소설의 어머니는 자식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머니의 평가 척도는 아들 평가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데 〈소현성록〉에서 화부인과 소운명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24] 소운명은 여색을 좋아하며 매우 감정적 인물이다. 소운명의 평소 행실은 아버지 소현성에게 지적되며 그것은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어머니 화부인의 탓으로 돌린다.[25] 이러한 자식의 불초함에 대한 부끄러움은 몽유록 장르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다. 물론 이전 시기 몽유록 작품 〈피생명몽록(皮生冥夢錄)〉에서도 몽중 인물이 자신의 아들 이극신(李克信)의 불초함에 대해 언급하지

20 박길희, 「〈창선감의록〉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지향과 교화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139~144쪽.

21 하나의 예시를 더 추가하자면, 〈황릉몽환기〉의 작중 인물인 〈유효공선행록〉의 정씨 또한 시댁에서의 소외를 경험한 인물이다. 시어버지 유정경과 시동생 유홍의 시달림으로 손아랫동서인 성씨 부인에게 절을 해야 하는 수모까지 당한다. 이에 대해선 3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22 역사 인물을 환상의 공간에 소환하여 그들의 비애를 듣는 서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다. 예컨대 당전기 〈주진행기(周秦行記)〉는 『태평광기상절』에도 실려 있어 조선에서 많이 읽혔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작품에 박태후를 중심으로 각 시대의 황후와 첩들이 등장하며 시연을 벌인다. 한편 17세기 몽유록 〈강도몽유록(江都夢遊錄)〉에도 여성들이 등장하기에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여성들은 그 서사의 중심이 여성들의 한과 절행에 대한 찬사가 중점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물론 남편이나 아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야기가 적혀 있으나 이것은 개인적 참화로 인한 '한'을 드러내는 장치로 이용된다.

23 이들 경서나 역사서에서도 볼 수 있듯 아황과 여영의 고통은 그녀들의 열절(烈節) 행위를 모범화, 가시화하는 데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지, 복록 뒤의 불행에 주목하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황릉몽환기〉는 기존 경전과 역사서를 전복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4 정선희, 「17 · 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79쪽.

25 〈소현성록〉 12권. ""… 존당 명령을 거ᄉᆞ리고 형뎨의 규졍ᄒᆞ믈 듯디 아냐 무식 방ᄌᆞᄒᆞ기ᄅᆞᆯ 횡힝ᄒᆞ야 감히 니샹셔 ᄉᆞ당을 ᄲᅢ텨 비법을 힝ᄒᆞ려ᄒᆞ고 곡딕을 아디 못ᄒᆞ여셔 니시의 ᄋᆞᄌᆞᄅᆞᆯ 죽여 무단히 골육을 샹잔ᄒᆞ려ᄒᆞ며 망녕된 죄상이 여산ᄒᆞ니 ᄒᆞᄆᆞᆯ며 풍교ᄅᆞᆯ 더러이고 가셩을 욕먹인 죄ᄂᆞᆫ 죽여도 앗갑디 아닌 네의 어미 죄ᄅᆞᆯ 아오로 주ᄂᆞ니 모로미 ᄌᆞ시 아ᄂᆞᆫ다?" 드ᄃᆡ여 ᄂᆡ당 통ᄒᆞᄂᆞᆫ 협문을 딕희여 부인ᄂᆡ 뎐어ᄅᆞᆯ 나오디 못ᄒᆞ게 ᄒᆞ고 운명 댱칙ᄒᆞᄃᆡ 낫마다 셤칙ᄒᆞ야 호령ᄒᆞ니 이ᄲᅢ로 보건대 부ᄌᆞ의 지극ᄒᆞᆫ 졍이 젼혀 쇼삭ᄒᆞ야 일호 인졍이 업ᄉᆞ니 보ᄂᆞᆫ 쟤 블승 차악ᄒᆞ며 승샹의 노긔 졈〃 니러나 뉵십 댱의 니ᄅᆞ매 싱의 긔질이 본ᄃᆡ 셤약ᄒᆞ야 ᄋᆞ녀ᄌᆞᄀᆞᄐᆞ므로뻐 쟝ᄎᆞᆺ 소ᄅᆡᄅᆞᆯ 일우디 못ᄒᆞ고 긔운을 수습디 못ᄒᆞᄃᆡ 죠곰도 그칠 ᄲᅳ디 업서 이에 닐오ᄃᆡ, "몬져 마ᄌᆞᆫ 뉵십 댱은 네의 죄오 제 맛ᄂᆞᆫ ᄉᆞᆫ 네 죄 아니라.""

www.kci.go.kr

만 이것은 이극신 자체를 비판하기 위함이지 아들을 잘못 기른 부끄러움과는 큰 관련이 없다.

한편 상비의 언급에는 후사(後嗣)에 대한 욕망도 어느 정도 자리한다. 이것은 뒤에 나올 주비에게 '진실로 천고 만대로부터 보아도 적수가 없는 복덕'이라고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임금의 자리가 아들인 성균에게 가지 못하고 우임금에게 간 것을 두고 '황상(순임금)의 복록이 효성과 덕행만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비가 생각하기에 주비는 아들들이 임금과 성인의 위치를 이어가 복록이 완벽한데, 자신은 불초한 아들을 길러 순임금의 왕위를 잇지 못했으니 그에 못하다는 생각이다. 완벽할 수 있었던 순임금의 복록이 자신과 아들 상균으로 인해 흠이 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계자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17세기부터 시작된 가문소설의 계후갈등에 나타난 욕망과 관련이 깊다.

정리하자면 〈황릉몽환기〉의 상비의 비애담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가족 현실'로 인한 고통이며 이것은 여성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런 가족으로 인한 소외는 가문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며, 〈황릉몽환기〉의 기법이 공감이라는 차원에서는 몽유록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가족과 아들에 대한 관심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어서 주비의 반론, 즉 (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

"… 쳡이 졔후의 녀로 졔후 비 되미 구고의 셩덕과 군ᄌᆞ의 덕화는 임의 만ᄃᆡ예 일ᄀᆞᆺ는 ᄇᆡ니 ᄯᅩ한 엇지 못ᄒᆞᆯ 녕홰나 시운의 니치 못ᄒᆞ믈 맛나 칠연 유리셩의 곤ᄋᆡᆨᄒᆞ물 당흐니[이는 문왕이 쥬의 가도이물 닙으샤 칠년을 유리예 계시다] 쳡의 간쟝이 엇지 낭〃의 밧 가온ᄃᆡ 광ᄌᆞ리을 니며 하빈의 불쐬으믈 불워 아니리잇고? 셔ᄇᆡᆨ이 님거의 외ᄉᆞ는 ᄇᆡᆨᄋᆞ와[ᄇᆡᆨ읍고라] 산의ᄉᆡᆼ을 맛디고 궁거ᄂᆞᆫ 쳡이 가음알개ᄒᆞ니 쳔여후궁과 일ᄇᆡᆨ졔ᄌᆞ를 시쵹 거ᄂᆞ리나 부인의 도리 즁문 밧글 간예치 못ᄒᆞ고 칠연 ᄉᆞ이예 간쟝이 초삭ᄒᆞ엿거늘 망영된 ᄋᆞ희 어ᄆᆡ 말을 듯지 아니코 ᄃᆡ효를 위본ᄒᆞ여 만니 발셥의 풍상을 무릅써 혼군의 손의 참화를 맛ᄂᆞ니 쳡의 심쟝이 비여셕이오 비여금이라. 엇지 여러ᄌᆞ녜 잇시믈 ᄉᆡᆼ각ᄒᆞ리오? 지원극통과 녁니지한이 ᄲᅥ를 ᄲᅥᆺ아ᄂᆞᆫ ᄃᆞᆺ 솔을 버히ᄂᆞᆫ ᄃᆞᆺ ᄒᆞ거ᄂᆞᆯ 희라! 관치의 불효불츙ᄒᆞ믄 진실노 쳡의 녀앙이라. ᄐᆡ교의 불션ᄒᆞ믈 붓그러 텬ᄉᆡ예 풀니지 아니〃 발과[무왕] ᄃᆞᆫ의[쥬공] 표〃ᄒᆞᆫ 거슨 ᄆᆡ양 예ᄉᆞ롭고 악ᄌᆞ의 흉녁은 심골이 경한ᄒᆞ니 지금의 잇지 못ᄒᆞᆯ 한이라. 하믈며 ᄇᆡᆨᄋᆞ의 참변은 쳔만셰를 지ᄂᆡ나 오히려 심신이 경동ᄒᆞ고 구ᄇᆡᆨ이 살난ᄒᆞ니 부귀복녹이 무어시 줄거오리잇고?" (〈낭협ᄉᆞ몽유록〉 27~29면)

상비는 자신보다 더 큰 복록을 가진 이가 있으니 그것이 주비라 하며 주비를 소개한다. 이에 주비는 "낭〃이 텬지만물의 통촉지 못ᄒᆞ실 ᄇᆡ 엄ᄉᆞ시ᄃᆡ 홀노 타인의 복을 아라시고 타인의 우를 모로시"[26]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복록이 허울 좋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때 주비 역시 상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부분을 앞세워 상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펴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1) 남편인 무왕이 유리성에 7년을 갇혀 이별한 일, 2) 큰아들 백읍고가 주왕(紂王)에게 죽임을 당한 일, 3) 아들인 관숙선(管叔鮮 혹은 관숙)과 채숙도(蔡叔度 혹은 채숙)가 반란을 일으킨 일이 그것이다. 1)은 가족과의 이별이라 할 수 있고 2)는 자식의 죽음이라 할 수 있겠다. 3)의 경우는 앞서 상비의 언급에서 볼 수 있던 자식에 대한 부끄러움과 동일한 맥락이다. 여기에서는 1)과 2)에 집중해 보고 3)에 대해선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그 죽음을 문학적 소재로 다루는 일은 흔하다. 대표적으로 17세기 전기소설 〈최척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을 동아시아 공간을 무대로 그려내기도 한다. 하지만 〈최척전〉의 경우는 기존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 전기소설의 분화와 후대 가(家) 담론의 영향 관계에 놓여 있기에 특별한

26 〈낭협ᄉᆞ몽유록〉 26면.

www.kci.go.kr

경우라 할 수 있다.[27] 여타의 전기소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연인의 죽음을 목도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 차원으로 확장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최척전〉을 보면 최척과 옥영은 첫째 아들 몽석이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실은 살아있지만) 아들에 대한 '트라우마'는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문소설에는 자식이 죽었다면 그 자식에 대한 기억과 트라우마가 작품의 말미까지 이어진다. 가령 〈소현성록〉의 양부인 및 소씨 가문 사람들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은 둘째 딸 교영에 대해 지속적인 그리움을 내비친다.

몽유록 장르는 분명 '죽음'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 몽유록의 첫 작품 〈원생몽유록〉에서 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죽은' 역사적 인물이며 대부분의 몽유록 작품이 그러한 정조(情調)를 띄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몽중 인물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즉 자신이 어떻게 누구에게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억울함을 갖고 있는지를 몽유자에게 토로할 뿐 자신 외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황릉몽환기〉의 주비가 자신의 첫째 아들 백읍고의 죽음에 대해 발화한 것은 특기할 부분이다. 〈황릉몽환기〉의 관심이 자신의 개인사에서 가족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족의 유배(流配)와 같은 이별의 특정적 상황(다른 지역으로의 부임,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 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 보면 그 차이는 확연해진다. 가문소설에는 이러한 상황이 자주 제시[28]되는 데 비해 몽유록과 전기소설에는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의 만남과 이별 혹은 몽중 인물의 역사 이면의 일을 몽유자에게 전달해준다는 두 개인의 관계성에 관심을 두지, 가족의 관계성을 탐색의 범위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릉몽환기〉가 문왕(서백)이 유리성에 유폐된 역사적 사실을 거론한 것은 분명 몽유록적 관심사에 부합하지만, 가족의 이별을 통해 벌어지는 슬픈 경험을 토로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가문소설의 것에 더 밀접하다.

마지막으로 관숙선과 채숙도의 쿠데타 장면은 앞서 살핀 상비의 성균과 마찬가지로 불초한 아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무력을 동반한 왕위 찬탈이기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 즉 가족 내부의 권력 쟁탈, 계후(繼後) 쟁탈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한다면 이것은 사대부가 여성들이 가문소설에서 자주 향유하고 있던 가문에 대한 지배 욕망 혹은 그러한 관심사를 잘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16세기 문인 심의(沈義)의 〈기몽〉에서는 특이하게 문장 왕국에서의 권력 쟁탈이 보이긴 하지만 가족 내부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후 〈금화사몽유록〉이나 〈사수몽유록〉에도 전쟁적 요소가 보이지만 〈황릉몽환기〉의 가족 내부의 권력 쟁탈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도 〈황릉몽환기〉는 기존 몽유록 장르의 서술기법과 차별점을 갖는다.

3. 〈황릉몽환기〉의 가문소설적 지향의 의미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 계암의 비판3과 (사) 정씨의 반론3이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작품의 주제 및 구현 방식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이 두 부분은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조명하여 어느 정도 해명된 바 있다. 그러나 계암의 비판이 왜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지, 또 이전 연작소설 〈여와전〉의 다양한 등장인물 중 유독 정씨가 삽입되었는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여기에서는 앞선 2장의 논의를 토대로 이것이 가문소설의 향유 차원에서 계암의 비판과 정씨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바) 계암이 다시 비판하는 장면은 주비가 "주고 녈여

27 김종철, 「고전소설사에서의 17세기 소설의 위상」, 성현경교수추모논총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사, 2011, 134~138쪽; 김종철, 「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가(家)"의 등장」,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003, 405쪽.

28 〈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과 아들의 이별 장면, 〈창선감의록〉에서 화진의 유배 장면, 〈소현성록〉에서 소경의 순무어사로의 부임 등.

www.kci.go.kr

와 쳔ᄒᆞ의 녀ᄌᆡ 앗가온 긔질노 ᄒᆞᆫ두 가지 슬픔ᄲᅮᆫ 안이라 한두 가지 즐거옴도 업ᄉᆞᆫ ᄌᆡ 만흐니 엇지 가련치 아이리오?"[29]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에 상비는 그 대답으로 "일홈이 빗나고 힝실과 덕이 후셰예 스승ᄒᆞᆫ ᄇᆡ 된즉 이 ᄯᅩ한 아롬답지 아니리오?"[30]라고 하며 반론을 제시한다. 요컨대 주비는 이념을 행했으나 이름을 내지 못한 여성들에 대해 딱하다는 입장이고, 상비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나면 후세에 모범이 되니 좋다는 의견이다. 이 얘기를 들은 계암은 "홀연 회푀 요동ᄒᆞ믈 ᄎᆞᆷ디 못ᄒᆞ여"[31] 상비에게 죽기를 무릅쓰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된다.

"… 션을 ᄲᅡ흐나 안 니 업고 힝을 닷그나 보 리 업ᄉᆞᆫ 바의 쇽졀 업시 시졀을 슬허ᄒᆞ고 탁셰를 감분ᄒᆞ야 강호의 파탕ᄒᆞ여 산슈의 오유ᄒᆞᆷ도 ᄯᅩ한 온젼치 못ᄒᆞ고, 치국안민의 즁흥ᄃᆡ업도 긔필지 업노니, 아지 못개라. 이 몸이 어ᄂᆞ ᄯᅴ예 마ᄎᆞ며, 어나 ᄂᆞᆯ 이 한이 풀니리잇고? 인ᄉᆡᆼ이 한 번 나ᄆᆡ 츙효 두 가지를 다 엇지 못ᄒᆞ여도 ᄯᅩ한 다 일치 못ᄒᆞ여든 신이 홀노 다 엇지 못ᄒᆞ고 구ᄎᆞ히 투ᄉᆡᆼᄒᆞ니 원이 밋치지 아니리잇고? 낭〃이 임의 텬하 음교를 가음아ᄉᆞ ᄉᆡᆼ민을 졔도ᄒᆞ시니 신을 건져 탑하의 용납ᄒᆞ시면 셰〃ᄉᆡᆼ〃의 슈은보덕ᄒᆞ리이다." (〈냥협ᄉᆞ몽유록〉 32~33면)

계암의 말을 요약하면 선행을 쌓고 덕행을 닦았으나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못했고, 구차하게 세상을 살아가자니 차라리 상비가 있는 황릉묘(천상세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토로한다. 이에 상비는 (계암은 깨닫지 못했지만) 계암이 천상계의 일원이었다가 적강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면서 "불졀업시 울통(鬱悤)ᄒᆞᆫ 원긔(元氣)를 ᄆᆡᄌᆞ 텬지(天地)의 화긔(和氣)를 감상(感傷)치 말고 가지록 젹덕힝인(積德行仁)ᄒᆞ여 텬도(天道)의 어엿비 넉이시믈 밧ᄌᆞ오라"[32] 고 말해준다. 그런데 (바)에서의 비판은 이전 (나)-(다)의 비판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 비판은 대상의 행동에 대한 비판에서 사회적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관심을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 대해 지연숙은 "「남정기」(〈사씨남정기〉: 필자주)의 사정옥-이비 문답의 복사판"[33]임을 지적하기도 했고, 〈사씨남정기〉의 황릉묘 대목과 관련하여 강상순은 몽유록의 토론과 시연 장면의 흡사함을 들어 "이념적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34]로 보기도 하였다. 필자는 두 연구자 모두 합당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황릉몽환기〉라는 몽유록 장르에 〈사씨남정기〉의 서사를 빌려오기 비교적 용이했다. 이 부분이 〈사씨남정기〉의 것을 빌려온 것이라면 〈사씨남정기〉는 어떠한가?

"푸르고 푸른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처럼 혹독한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까? 옛사람이 이른 바 복선화음(福善禍淫)이라는 말은 허황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35]

사정옥은 동정호 주변 회사정(懷沙亭)에 올라 위의 말을 뱉고는 곧 쓰러져 이비가 있는 황릉묘로 이동하게 된다. 신비체험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사정옥의 천도에 대한 의문은 계암이 가진 천도에 대한 의문-비판과 같은 맥락을 띤다. 유해인은 이러한 계암의 의문에 대해 조금 갑작스럽게 '현실보응'의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36] 이 갑작스러운 서사의 전환은 〈사씨남정기〉를 염두에 놓을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은 갖은 고난을 경

29 〈냥협ᄉᆞ몽유록〉 30면.
30 위의 작품, 31면.
31 위의 작품, 31면.
32 위의 작품, 34면.
33 지연숙,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학연구』 3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54쪽.
34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144쪽 각주 29번.
35 〈謝氏南征記〉(규장각본). "蒼蒼者天! 何爲使我, 此極也? 古人所謂福善禍淫, 豈非虛語?"
36 유해인, 앞의 논문, 124쪽.

www.kci.go.kr

험한 후 환상세계로 진입해 그곳의 이비로부터 고난에 움츠러들지 말고 현실에서 이념을 잘 지키라는 조언을 듣는다.[37] 이와 다르게 계암은 유유자적하게 은거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환상세계에서 여성들의 갖은 슬픔을 듣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고난을 경험한 다음 상비로부터 이념을 잘 지키라는 조언을 듣는다. 두 작품 모두 이상으로 질주하라는 이비의 조언은 같으나 과정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계암은 현실이 아닌 몽중 세계에 진입하면서 여성의 고난에 공감할 수 있었고 비로소 사정옥과 비슷한 성질의 인물로 변화한다. 이런 점에서 작자는 비록 〈사씨남정기〉에서 설정을 빌려왔으나 몽유록의 구조를 빌려 환상세계를 체험한 인물의 내면 변화를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인(聖人)이지만 슬픔을 겪어야 한다는, 보편적 역사 일반에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비극을 발견한 것에 있다. 2장에서 보았듯 상비와 주비의 말을 빌렸지만 그들의 대화 안에는 가문소설의 지향점이 내재해 있었다. 시댁에서 소외되는 문제, 가족과 이별하는 문제, 자식의 죽음과 불초한 자식에 대한 부끄러움 등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보편적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다. 계암은 남성이지만 이들의 이야기에 기울일 수 있었다. 그것은 이비에 말에 따라 본래 황릉묘에 있던 여선(女仙)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작품 외부로 보자면 향유 계층이 여성이기에[38] 계암의 외피를 썼지만 궁극적으로 여성의 문제에 귀 기울일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간에 계암은 여성들의 문제에 침잠했고 따라서 슬픔에 공감하여 사정옥과 비슷한 성질의 인물로 변화하면서 그녀와 동궤의 복선화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계암의 비판이 다시 나타난 까닭도 이것이다. 가문소설 문법에 익숙한 독자라면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상비의 적덕행인(積德行仁)하라는 말을 들은 계암은 충분하지 못했다. 자신이 현세에 죽고 다시 황릉묘에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이상으로 질주하라는 상비의 말에 스스로 공감할 수 없었다. 이에 황릉묘에 나오면서 〈유효공선행록〉의 등장인물 정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야기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정씨의 등장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해석이 다채롭다. 천도의 불확실성을 재증명했다는 논의(지연숙, 유해인), 적덕행인을 보완하였다는 논의(김정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또는 그 저항의 경계를 표현했다는 논의(반재유, 강우규) 등이 그것이다. 이 글은 이 중에서도 김정녀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김정녀에 따르면 정씨의 등장은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고 행할 바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역설"[39]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정씨의 발화를 보자.

"쳡은 ᄃᆡ명 셩화 연간의 승상 의열공 졍관의 쳔금 쇼괴오, 효문공 뉴연의 부인이라. 심규의 양셩ᄒᆞ여 현ᄉᆞᄒᆞᆫ ᄃᆡ 머무지 아여시ᄃᆡ, 시운이 불니ᄒᆞ야 만상풍파를 경녁ᄒᆞ고, 조쥬 젹소의셔 뉴공이 원ᄉᆞ하니 쳡이 복아를 나하 비ᄌᆞ 난향을 맛지고 닉슈ᄌᆞ사 ᄒᆞᆫ지라. 후ᄃᆡ예 아ᄌᆞ 우셩이 현달ᄒᆞ여 텬ᄌᆞ긔 고ᄒᆞ고 조쥬 물ᄀᆞ의 우리 부〃의 효졀을 긔록ᄒᆞ여 비를 셰웟거ᄂᆞᆯ, 조션 사ᄅᆞᆷ들이 '목숨을 앗기고 일홈을 쳔이 넉니괴 되여 슈월

37 〈謝氏南征記〉(규장각본). "座上衆夫人, 皆歷代賢婦烈女, 幸不相棄, 有時乘風雲而來會. 若其生前之悲歡榮辱, 今何足追論也? 由是觀之, 人惟不爲善, 天豈負善人?"

38 이것은 지연숙이 언급한 바 있는데 성균관대본 〈경암게암젼〉의 마지막에는 여성이 필사한 흔적이 남겨져 있다. 특히 두 번째 필사기가 주목되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황릉몽환기〉를 보내면서 작중 상비와 주비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남편을 잃은 딸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지연숙, 앞의 책, 235~236쪽). 다만 지연숙은 위 정보를 들어 작자가 〈황릉몽환기〉를 필사한 까닭이 복선화음이라는 주제를 재현하는 장편소설류(가문소설)와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즉 가문소설에는 복선화음이 내재되어 있으니 현실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려운 장르로 지연숙은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복선화음이라는 '상상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라캉과 알튀세르가 이미 지적했듯 주체를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이 주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재생산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위 필사기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다시 현실(상징계)에 적응하도록 문학을 통해 환상적 장치를 심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선 일찍이 강상순이 언급한 바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강상순, 「조선후기 장편소설과 가족 로망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33~64쪽).

39 김정녀, 앞의 책, 177쪽.

www.kci.go.kr

암의 오연을 머무러 뉴공의 쳣기를 기ᄃᆞ려 무ᄌᆞ러진 두발과 흰 오ᄉᆞ로 뉴가의 도라와 뉴공의 견집된 거동을 보고 십연을 ᄉᆞ다'ᄒᆞ니 엇지 긔괴치 아니ᄒᆞ며, 뉴공은 효의군ᄌᆡ라 엇지 가엄의 소초를 보고 날을 다시 용납ᄒᆞ며 것ᄎᆞ로 견집ᄒᆞ여 권변을 쓸 사ᄅᆞᆷ이리오? 셰속이 치〃ᄒᆞ여 그러틋ᄒᆞ믈 낙슬 아나 쳡과 뉴군은 임의 효졀노 몸을 마ᄎᆞ시니, 엇지 구ᄎᆞ히 헛일ᄒᆞᆷ을 비러 셰인을 쏙이리오? 아ᄌᆡ 복녹이 무량ᄒᆞ니 운소 간의 한이 업고, ᄯᅩ한 상비의 츙션이 되어시니 한ᄒᆞᆯ 거시 업ᄂᆞᆫ지라. 군은 나의 본말을 ᄌᆞ히 아ᄂᆞ니 쳡의 위리ᄒᆞ믈 고지드러 고히 넉이지 말나. 그 죽을 ᄯᅡ흔 엇기 어려오니 그ᄯᅴ를 만나ᄆᆡ는 ᄉᆞ이예 귀ᄒᆞ미 맛당치 아니리오?" (〈낭협ᄉᆞ몽유록〉 36~38면)

정씨는 조선에 알려진 〈유효공선행록〉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며 실제는 남편을 따라 절사(節死)했다고 말한다. 즉 〈황릉몽환기〉에서의 정씨의 발화는 세간에 알려진 사실에 대한 반론이다. 이 반론은 지금까지 작중에 나온 여성들과는 차이가 있다. 상비는 절사 행위가 과도한 것이라는 계암의 비판을 반론하였고 주비는 상비보다 복록이 더 크다는 언급을 반론하였다면, 정씨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 반론을 편다. 이렇게 보면 작품 문면에 나타나는 정씨의 말은 〈황릉몽환기〉의 작자가 '이념적으로 완벽한' 정씨를 창조하기 위해 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절사를 수행한 여성이기 때문이다.

누차 언급했듯 상비와 주비는 시댁에서 소외되는 문제, 가족과 이별하는 문제, 자식의 죽음과 불초한 자식에 대한 부끄러움 등 여성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지는 문제를 토로한다. 이것은 가문소설의 지향과 맞닿아 있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정씨의 행적을 살피면 그녀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에게 고난을 받는 소외 문제,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떠나거나 남편이 귀양을 가는 이별의 문제 등 여성으로서의 갖은 고난을 체험한 존재다. 그런 점에서 〈사씨남정기〉의 사정옥이나 〈창선감의록〉의 남채봉과 같은 위상을 지니며 몽중 세계에 그녀가 소환된 이유를 알게 해준다.

그러나 그녀는 〈황릉몽환기〉에 한정해 보자면 사정옥이나 남채봉과 달리 현실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한 존재다. 이 지점에서 〈황릉몽환기〉는 지금까지의 가문소설과 다른 전략을 취하는데, 바로 현실의 복록을 취하지 않고 선계에서의 복록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몽유록의 서사 전략이다. 17세기 〈강도몽유록〉을 보면 한 여인이 염라왕과 천제(天帝)의 말을 빌려 현세에서의 아름다운 행실이 있었으니 극락이나 하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준다.[40] 다시 말해 이념을 지키면 망자(亡者)라도 선계에서 복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몽유록은 이념적 행위를 수행하다가 죽은 자에 대해 추모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렇지만 정씨의 발화를 잘 살펴보면 '아들 유우경이 현달'했다는 언급이 나오고 '아들 우경의 복록이 셀 수 없다'고 표현한 부분이 나타난다. 몽유록에는 아들을 잘 기른 어머니상에 대해 다루는 경우가 없기에 이 경우는 특별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황릉몽환기〉의 작품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 몽유록과 가문소설 장르의 적절한 통섭(通涉)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아비를 따라 죽은 절사한 여인의 행위도 칭찬할 행동이고, 현달한 아들을 낳은 여인의 행위도 칭찬할 행동이다. 〈황릉몽환기〉의 정씨의 말처럼 〈유효공선행록〉에서 정씨가 강물에 빠지지 않고 '구차히' 살아남아 현실의 복록을 얻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이념을 성취한 것이 될 수 없다. 〈황릉몽환기〉의 정씨 모습은 죽음을 통한 절의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몽유록의 이념적 가치를 재현한 것이다. 동시에 아들의 복록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념을 잘 수행한 현실적 보상,

40 〈江都夢遊錄〉(버클리대본). "俄而, 仙童遽入冥府, 顧謂閻羅王曰, '世間風雨, 人多節死, 上帝惻然, 傳敎曰, '節婦懸錄, 朕欲觀諸, 咨爾仙童, 無違朕命!' 是以余今至矣, 王將許歟?' 曰, '唯.' 卽親封玉牒, 恭獻天府, 則天帝覽畢, 詔於冥府曰, '朕之所重者義, 而人也行之, 朕之所貴者節, 而人也守之. 其所守之者行之者, 使入天堂, 安樂其身, 而至於某人, 舅父之德, 亦參其節, 朕甚惜之. 朕將褒之, 莫置冥府, 而送之玉虛, 淸宵桂殿與月娥逍遙, 白日銀河共織女翱翔, 則王之彰明貞節, 朕之尊崇義烈, 爲如何哉?' 王拜謝其命, 命我孤魂, 駄之鶴背, 則九萬層空, 可謂咫尺. 嗚呼! 舅父之德, 若非其德, 則天府仙游, 何可得也?"

www.kci.go.kr

즉 복선화음을 재현한 것이다. 이것은 가문소설의 현실적 가치를 가시화한다.

결국 정씨의 이 발화 양상은 양자택일(兩者擇一)이 아닌 양자통합(兩者統合)을 보여준다. 복록을 누리는 것과 이념을 수행하는 것 양자를 모두 아우르기 때문이다.[41] 천도와 복선화음이 과연 존재하는지의 의문은 정씨를 통해 그것이 해소되며, 그래서 〈황릉몽환기〉 속 정씨의 모습은 적덕행인을 수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성균관대본 〈경암게암젼〉 말미에는 필사기가 합철되어 있다. 여기에는 남편을 잃은 딸을 위해 어머니가 이 글을 필사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딸이 현실의 슬픔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고요흔 덕을 놈모르게 닥가"서 며느리로서 "어진 부인이 되고 편노친을 지효로 셤겨"야 하며 어머니로서 "고고흔 ᄌᆞ녀를 ᄌᆞᆯ 교양"할 것을 지침으로 주고 있다. 〈황릉몽환기〉에서 증명하듯, 성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덕행인을 잘 수행해야 정씨와 같이 이름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이다.[42] 불행한 여성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 같은 역할을 이 작품이 한다.

이처럼 〈황릉몽환기〉는 몽유록의 표피를 쓰고 가문소설의 방식으로 등장인물의 발화를 형상화한다. 가문소설의 기법이 몽유록에 녹아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가족과 가문이라는 소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 사실은 당대 여성들이 가문소설의 서사 관습을 생각보다 깊이 내면화(incorporation)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특히 가문소설이 18-19세기 다양한 장르와 영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43] 〈황릉몽환기〉 또한 가문소설의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창작된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황릉몽환기〉가 몽유록 장르 중 가문소설과의 뚜렷한 영향 관계 속에서 창작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은 이 작품에 대한 소설사적 의의를 다시 부여하게 한다. 거시적이고 첨예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되는 몽유록과 다르게 〈황릉몽환기〉는 '가(家)'를 중심으로 여성의 미시적 삶에 주목하여 고난한 삶에 공감하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다. 이것은 몽유록이 점차 생활사적 관심사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며, 현실에 대응하는 문학 장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남성지식인의 고민만을 담아내던 그릇에서, 이제 18-19세기 다양한 향유층의 관심사를 포섭할 그릇으로 몽유록이 거듭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 나가는 말

이 글은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검토하여 그것이 가문소설의 창작 기법과 영향 관계에 있음을 밝혀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황릉몽환기〉에는 두 명의 몽유자가 등장하며 몽유자와 몽중 인물 사이의 관계가 비우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이 글이 처음이다. 이 글은 이 부분을 가문소설의 기법이 활용된 것으로 보았다. 가문소설은 등장인물 간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 치중하는

41 장르적 차원으로 국한해 보아도 몽유록과 가문소설의 적절한 배합이라 하겠다.

42 이 글은 작품 속 각몽(覺夢) 후 두 사람의 '근심'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의 근심은 꿈에서 이제 막 깨어난 직후인데 이 꿈이 과연 믿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서 오는 고뇌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방향에 대한 선택은 독자(혹은 상비와 주비, 정씨의 이야기를 들은 계암과 경암)의 몫이다. 더 나아가 이 마지막 부분은 몽유록 장르의 클리셰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몽유록의 마지막이 울적하거나 처창한 분위기로 맺기 때문이다.

43 대표적으로 〈화산기봉〉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영웅군담소설과 가문소설 등 다양한 장르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일찍부터 지목된 바 있다. (임치균, 「〈화산기봉〉 해제」, 『장서각소장고소설자료집 二, 〈화산기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이지영, 「가문소설로 본 낙선재본 〈화산기봉〉」, 〈고소설연구〉 3, 한국고소설학회, 1997; 전성운, 「장편 국문소설의 변모와 영웅소설의 형성」, 고려대 박사논문, 2000.)

www.kci.go.kr

장르이다. 두 명의 몽유자가 비판한 방식은 희담적 성격이 강한데 이들과 관계성이 약한 이비는 이들의 희담을 오해한다. 즉 계암의 비판을 엿들은 상비가 계암을 황릉묘로 초대하여 그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 오해를 푸는 과정은 가문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식으로 비우호적 관계에서 우호적 관계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과 흡사하다. 두 명의 몽유자가 등장한 이유는 엿듣기 화소를 차용해서, 몽중 인물과 비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관계의 전환을 꾀한 가문소설의 기법과 가깝다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황릉몽환기〉에는 여성들의 반론이 등장하며 이 반론은 공감을 위한 고난의 개인사를 나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댁으로부터의 소외, 가족과의 이별, 자식의 죽음, 자식의 불초함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가족과 가문의 이야기로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몽유록 소재에서 독특한 방식이기도 하다. 이 반론의 기반은 가문소설의 창작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댁으로부터의 소외는 가문소설의 여성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가족과의 이별과 자식의 죽음도 가문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슬픔을 자아내는 역할을 한다. 자식의 불초함 역시 계후(繼後)를 잇지 못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욕망이 엿보이고 있어 가문소설의 지향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셋째, 계암의 복선화음과 천도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사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씨남정기〉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황릉몽환기〉에서 이 부분은 방식과 행동 측면에서 〈사씨남정기〉와 매우 흡사하지만, 갖은 고난을 겪은 다음 황릉묘에 이동해 이비의 조언을 듣는 사씨와 유유자적한 삶을 살다가 여성들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들은 다음 상비의 조언을 드는 계암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즉 계암은 몽중 세계에 들어와 비로소 사정옥과 비슷한 성질의 인물로 거듭났음을 알려준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작자는 〈사씨남정기〉를 차용하면서도 몽유록의 방식으로 주인공 계암의 성격을 변화시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유효공선행록〉의 등장인물 정씨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그녀는 가문소설의 여성들처럼 고난을 겪는 존재다. 그런데 〈황릉몽환기〉에서는 〈유효공선행록〉에서 복록을 누리는 부분을 소거시켜 그녀가 남편을 따라 함께 절사를 택한 여인으로 그려낸다. 그녀는 현실에서 복록을 누리지 못하지만 자신은 선계에서 복록을, 그녀의 아들은 현세에서 복록을 누리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다. 이것은 몽유록에서 흔히 보이는 절사를 차용하면서도 가문소설의 복록 부분을 절묘하게 통섭시킨 사례라 하겠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황릉몽환기〉는 몽유록의 표피를 가지면서도 가문소설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특이한 작품이라고 평할 수 있다. 몽유록 장르에서 가(家)를 소재로 다루는 경우는 〈황릉몽환기〉가 유일한데 이것은 당대 여성들이 가문소설의 기법을 내면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 몽유록에는 거시적인 역사적 국면을 소재로 남성 문인지식인이 자신의 생각을 펼쳐놓는 일에 익숙한 반면, 〈황릉몽환기〉는 여성들이 가문소설을 토대로 몽유록에 연계시켜 놓음으로써 향유의 확장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도 몽유록이 삶에 대응하기 위한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황릉몽환기〉에 대해 여성 의식을 알아보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이번 논의를 통해 여성의 가문소설 향유의 범주가 생각보다 넓었고, 무엇보다 몽유록과 가문소설이 만나면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데서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江都夢遊錄〉(버클리대본) / 〈경암게암전〉(단국대본) / 〈냥협ᄉᆞ몽유록〉(이현조본)
〈명주기봉〉 / 〈謝氏南征記〉(규장각본) / 〈소현성록〉 / 〈倡善感義錄〉(고려대본)

2. 단행본 및 논문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_____, 「조선후기 장편소설과 가족 로망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33~64쪽.
강우규, 「〈황릉몽환기〉의 리텔링 방식을 활용한 자기서사 글쓰기 교육방법의 고찰」,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2015.
_____, 「〈황릉몽환기〉의 이원적 성격 고찰 :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0, 중앙어문학회, 2014.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엿보기'와 '엿듣기' 서사 기법 연구」, 『한국고전연구』 6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170~173쪽.
김정녀, 「여성 향유층의 존재와 조선후기 몽유록」, 『반교어문연구』 16, 반교어문학회, 2004.
_____, 「조선후기 몽유록의 전개 양상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_____,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김종철, 「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가(家)"의 등장」,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003, 405쪽.
김흥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30쪽.
박길희, 「〈창선감의록〉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지향과 교화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139~144쪽.
성현경교수추모논총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사, 2011.
우쾌제, 「〈황릉몽환기〉 연구」, 『어문학』 58, 한국어문학회, 1996.
_____, 「이비전설의 소설적 수용 고찰」, 『고소설연구』 1, 한국고소설학회, 1995.
유요문, 「〈황릉몽환기〉의 새 이본, 〈양협사몽유록〉」, 『고전과 해석』 42,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4, 263~300쪽.
유해인,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여성 비애담의 특징과 그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9,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이지영, 「가문소설로 본 낙선재본 〈화산기봉〉」, 〈고소설연구〉 3, 한국고소설학회, 1997.
임치균, 「〈화산기봉〉 해제」, 『장서각소장고소설자료집 二, 〈화산기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장효현, 「〈황릉몽환기〉에 대하여」, 국어국문학회 전국대회 발표요지, 1995년 5월 28일.
_____,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140~154면.
전성운, 「장편 국문소설의 변모와 영웅소설의 형성」, 고려대 박사논문, 2000.
정선희, 「17 · 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 : 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79쪽.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91쪽.
지연숙, 「〈황릉몽환기〉 연구」,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0.
_____,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학연구』 3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_____,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_____,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Abstract

Methods of Criticism-Counterargument and Family Novel Orientation in <Hwangreung Monghwangi>

Yoo, Yo-Moon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methods of criticism and counterargument shown in the utterances of the characters in 〈Hwangreung Monghwangi〉, the late Joseon Dynasty's dream novel, and reveals that the methods are in contact with the narrative techniques and aesthetics of family novels. 〈Hwangreung Monghwangi〉 Previous studies focused on changes within the series of novels or Dream Journey, and women's consciousness, but did not explore direct relationships with family novels.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connection, an aspect of Gyeam's criticism that was oriented towards relationships emerged, and this was in line with the relationships of family novels. In addition, the parts where Sangbi and Joobi give counterarguments are filled with stories about family and clan, such as alienation from in-laws, separation from family, death of children, and childlessness, which suggests that this was influenced by the narrative techniques of family novels. This part was difficult to find in the existing dreamy rock genre. This work was created through an appropriate combination of the dream tour technique and the family novel technique. In conclusion, 〈Hwangreung Monghwangi〉 is the result of women who enjoyed family novels internalizing the technique and gradually moving to dreamy romance,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novels can be evaluated as the only work among dreamyurok works so far that is directly linked to family novels.

Keywords Hwangreung Monghwangi, Text of Dream Journey, Family Novel, Full-length Korean Novel, Hwangneungmyo

이 논문은 2024년 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6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www.kci.go.kr